Daishin 증권

2026년 03월 17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3 월 3 주차

- 미국 사모대출펀드 환매 급증 우려. 규모, 시기, 금리 감안 시 작은 균열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기는 조건 미부합
- 중국, 1~2월 무역흑자 역대 최고치 & 증시 추가 상승 기대. 샌디스크, 낸드 가격 급등 수혜. 프로로지스, 칼트레인 부지가치 극대화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MCHI). [미국주식] 샌디스크(SNDK).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PLD)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주간 퀀틴전시 플랜] 임계치에 도달한 유가, 금리, 달러 vs 더 강해지는 펀더멘털, 2 차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 유가, 금리, 달러 임계치 도달. 2차 변동성 경계
-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털, 상향 조정 중인 실적 전망 감안할 경우 비중확대 기회
- 선행 EPS 상승 & 외국인 순매수 유입 중인 업종에 주목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유가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 견고한 반도체 펀더멘털

- 이란 사태 불확실성 지속, 유가 변동에 따라 증시 연동되는 흐름
- 견고한 반도체 펀더멘털과 이벤트 기대감 유입
- 주주환원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맞물리며 업종별 차별화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중국 증시, 양회(兩會) 폐막 속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 중국 증시 정책 수혜 기대와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장세 연출
- 양회 정책 방향성은 내수 확대와 과학 자립 강조.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지연
- 정책 구체화, 트럼프 방중, 이란 불확실성 완화는 증시 추가 상승 요인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026 주주총회 프리뷰] 정책 효능감

-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기업의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증가
-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다수 상정
- 구속력 있는 정책 효능감 → 韓 증시 인프라의 구조적 업그레이드에 기여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Company Report] 코셈: 제 2 의 파크시스템스를 찾는다면

- 전자현기명 기반 분석 장비 기업
- 연구용 장비에서 산업용 장비로 상업화 구간 임박
- 2026년, 시간의 문제일 뿐 신규 장비 상업화에 따른 주가 Re-rating 기대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Weekly

2026년 3월 3주차

- 미국 사모대출펀드 환매 요청 우려, 규모, 시기, 금리 감안 시 조건 미해당
- 샌디스크, 낸드 가격 급등 수혜. 프로로지스, 칼트레인 부지가치 극대화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China ETF(MCHI), 샌디스크(SNDK), 프로로지스(PLD)

[글로벌전략] 전쟁을 틈타, 슬며시 피어오르는 부정적 요인

'미국의 사모대출펀드 환매 요청' AI와 관련된 '사스포칼립스' 우려에서 시작. 현재 미국의 사모대출시장 규모는 1조 8,000억 달러로 추정. 규모와 시기상 당장 위험요인이 되기 어려움. 현재 미국은 경기 확장과 기업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국면으로 작은 균열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기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기업의 실사용도 측면에서 고도화된 AI 도입 속도가 법적, 보안 위험을 감안 시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 결국 경기 침체 진입을 앞두고 있거나 구간에 놓여 있지 않는 이상 작은 균열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장되기 어렵다고 판단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MCHI): 1~2월 무역흑자 역대 최고치. 정책 수혜로 추가 상승 기대

10일 1~2월 누적 수출은 6,566억 달러(+21.8%), 수입은 4,430억 달러(+19.8%)로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인 2,136억 달러 기록. 수출은 AI 업황 호조에 전자 회로(+72.6%), 자동차(+67.1%), 선박(+52.8%)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확대.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 -11% 감소에도, 아프리카(+49.9%), 아세안(+29.4%), 유럽(+27.8%) 증가세가 이를 상회. 내수 회복 정책의 누적 효과가 경제 지표 호조로 확인된 만큼, 1) 경기 부양 정책 구체화, 2) 3.31일 트럼프 방중과 관세 협상 진전, 3) 이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등이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미국주식] 샌디스크(SNDK): 낸드 가격 하룻밤 사이 약 50% 급등, 심각한 공급 부족 우려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제작 기업 파이슨(Phison)의 CEO는 일부 낸드 플래시 제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상했다고 밝힘.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에게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거나, 일부 고객에게는 선불 결제를 요구하는 등 자금과 재고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 이는 자금력이 풍부한 AI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칩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PLD): 샌프란시스코 칼트레인 차량기지 주거복합 개발 추진

프로로지스는 샌프란시스코 도심 칼트레인 차량기지 인근 20에이커 부지를 800만 sqft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발표. 샌프란시스코는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AI 산업 고연봉 전문직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며 도심 프리미엄 주거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 물류 창고 대신 주거 복합개발로 전환해 부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채택 → 토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베팅. 15년 이상 소요되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단기 FFO 기여도는 낮으나 개발 파이프라인 가치증대 기대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임계치에 도달한 유가, 금리, 달러 vs 더 강해지는 펀더멘털. 2차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 유가, 금리, 달러 임계치 도달. 2차 변동성 경계
-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털, 상향 조정 중인 실적 전망 감안할 경우 비중확대 기회
- 선행 EPS 상승 & 외국인 순매수 유입 중인 업종에 주목

유가, 금리, 달러 임계치 도달. 2차 변동성 경계

지난주 KOSPI는 3월초 급락에서 벗어나 반등 시도에 나섬. 장 중 10%를 상회하던 변동성도 2 ~ 3% 수준으로 낮아지며 진정 국면 진입.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임계치에 도달하거나 넘어서면서 불확실성 확대**. 국제유가는 80달러 중반을 저점으로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를 넘었고, 미국채 10년물은 4.3%에 다가섬

임계치에 도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KOSPI 2차 하락 불가피. 추세 하락이 아닌 **진바닥, Rock Bottom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비중확대 기회**

1) 이미 KOSPI는 고점대비 20% 급락. 과거 경기 부진,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돌발 악재 발생시 조정 수준. 그 결과 2) KOSPI 12개월 선행 PER 8.51배. 장 중 저점 기준 8배 초반으로 Deep Value 국면 진입. 3) 120일, 200일선 이격도 또한 극심한 과열권에서 벗어났고, 4) 중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Risk Off 고점권 도달 근접. 5) 외국인의 KOSPI 시장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 Climax 권역 진입. KOSPI는 이례적인 급락만큼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만큼 빠르게 변곡점에 진입 또는 근접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털, 상향 조정 중인 실적 전망 감안할 경우 비중확대 기회

특히, 펀더멘털 악화, 불확실성 확대를 선반영한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이나 주요 산업들의 업황, 실적은 견고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상황**

1) 주요국 26년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는 부재. 미국은 2월 상향 조정되었던 2.5% 수준을 유지. 중국도 4.6% 수준. CPI 전망 변화도 미미한 상황. 2) **KOSPI 12개월 선행 EPS 상승 재개**. 26년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앞당겨지면서 실적 상향조정이 빠르게 진행 중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 선행 PER 8배 이하는 펀더멘털대비 UnderShooting 구간으로 판단. **금융시장의 가격 변화로 인한 2차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

이번주 16일 중국 실물지표 개선 예상. 지난주 물가 반등, 수출입 서프라이즈에 이어 실물지표 반등이 확인될 경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진정 예상. 이 경우 위안화 강세 압력이 커지며 원화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중국 소비주, 소재주에 긍정적일 전망

19일에는 미국 3월 FOMC 예정. 금리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점도표 및 SEP 변화 확인.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중요할 것.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경우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 높음. 채권금리, 달러 변화에 주목**

Trading 전략 : 선행 EPS 상승 & 외국인 순매수 유입 중인 업종에 주목

선행 EPS 상승 & 외국인 순매수 유입 중인 **건강관리, 화장품/의류, 조선, 기계, 건설 업종 주목**. 성장주, 내수주로 중동 리스크에 한 발 빗겨나있고, 금리인하 기대 유입 시 채권금리 하향안정과 함께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음. 조선, 기계, 건설은 중동 변수에 수혜주로 평가받는 업종

한편,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방산, 금융 업종은 단기 급락 이후 분위기 반전 모색 중**. 실적, 업황 등 펀더멘털 동력은 유효한 가운데 부담되었던 과열, 상승피로가 이번 급락으로 완화/해소되고 있음. 상승추세가 강한 만큼 40MA, 50MA 지지력 테스트 전개 시 비중확대 전략 가능할 것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유가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 견고한 반도체 펀더멘털

- 이란 사태 불확실성 지속, 유가 변동에 따라 증시 연동되는 흐름
- 견고한 반도체 펀터멘털과 이벤트 기대감 유입
- 주주환원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맞물리며 업종별 차별화

이란 사태 불확실성 지속, 유가 변동에 따라 증시 연동되는 흐름

주가지수 흐름은 장 초반 100달러 선에 근접한 뒤 상승폭을 축소하던 WTI 유가가 10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것과 연동. 이후 12시경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코스피 플러스 반전, 상승폭 확대

트럼프는 이란의 '하르그 섬'을 타격. 원유 시설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태가 장기화 시 원유 시설 타격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

동시에 중국을 향해서도 3월 말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임. 대외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이슈가 잇따라 노출되며 위험자산 선호를 제한

견고한 반도체 펀터멘털과 이벤트 기대감 유입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아시아 증시 대비 아웃퍼폼. 이번 주 16~19일 엔비디아 GTC 행사와 18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유입. 지정학적 상황과 별개로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 상향이 이어지면서 실적에 근거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2.8%), SK하이닉스(+7.0%)

반도체 중소형 장비주 종목별 차별화: 피에스케이(+15.4%), 한미반도체(-1.8%)

금일 11시 발표된 중국 소매판매·산업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아시아 증시 가운데 기술주 비중이 높은 홍콩과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주주환원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맞물리며 업종별 차별화

26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환원 기대감이 유입. 대기업 중복상장 규제 관련 소식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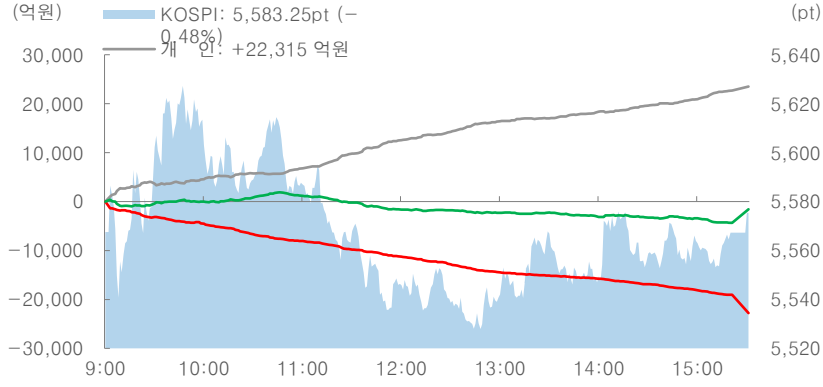
증권/지주: 미래에셋증권(+2.5%), 한국금융지주(+1.8%), CJ(+6.0%), LS(+6.4%)

유통: 신세계(+7.1%), 롯데쇼핑(+6.8%), BGF리테일(+5.9%), 현대백화점(+1.9%)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관련 업종 약세

에너지/화학: SK이노베이션(-2.9%), S-Oil(-2.4%), 한화솔루션(-5.4%)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중국 증시, 양회(兩會) 폐막 속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EM Strategist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Global & DM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중국 증시 정책 수혜 기대와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장세 연출
- 양회 정책 방향성은 내수 확대와 과학 자립 강조.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지연
- 정책 구체화, 트럼프 방중, 이란 불확실성 완화는 증시 추가 상승 요인

중국 증시, 이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양회 정책 기대와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

중국 CSI300 지수는 주간 +0.19%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S&P500 -1.6%, Nikkei225 -3.24%, KOSPI -1.75%, NIFTY -5.31%) 중 홀로 상승 장세를 연출했다(3.9~3.13일 기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에도 1) 3.5~3.12일 양회 경기 부양책 발표 전망, 2) 3.9일 주요 물가 지표 반등, 3) 3.10일 1~2월 무역흑자 역대 최고치 경신, 4) 3.3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대감이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양회 폐막, 정책 방향성은 확인됐으나 실행 구체성 부족은 아쉬운 요인

3.12일 폐막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 정부업무보고 초안, 2) 15차 5개년 계획 개요 초안, 3) 2026년 예산안 등 11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양회는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 중장기적으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중심 산업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리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비'를 약 30차례 언급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20개 핵심 목표 중 7개를 민생 분야에 배정했다. 또한 계획 초안에서 'AI'가 52회 언급됐으며, 1조 위안 규모의 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 신설과 2030년 AI 10조 위안 산업 육성 목표도 제시됐다. 다만 전인대 기간 경제·민생·외교 장관 기자회견과 15차 5개년 계획 논의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내수 확대와 과학 자립이라는 정책 방향성은 확인됐으나, 실행 속도와 구체성 부재는 시장의 기대를 하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회 기간 공개된 경제 지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수 회복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YoY 이하) 상승하며 '23.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은 4개월 연속 축소(-2.2% → -1.9% → -1.4% → -0.9%)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대외 지표도 양호했다. 1~2월 누적 수출은 6,566억 달러(+21.8%), 수입은 4,430억 달러(+19.8%)로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인 2,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AI 업황 호조 속 전자 회로(+72.6%), 자동차(+67.1%), 선박(+52.8%)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이 -11% 감소했으나, 아프리카(+49.9%), 아세안(+29.4%), 유럽(+27.8%) 증가세가 이를 상회하며 무역망 다변화에 성공했다.

내수 회복 정책의 누적 효과 확인. 양회 이후 3가지 상방 모멘텀에 주목, 조정 시 비중 확대로 대응

이번 양회는 단기 지표보다 중장기 산업 구조 전환에 초점을 두었기에, 단기 부양책은 부재한 반면 통상 및 외교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내수 회복 정책의 누적 효과가 경제 지표로 확인된 만큼, 향후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끌 3가지 모멘텀에 주목해야한다. 1) 정책 구체화(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 AI +7대 분야 투자 가이드라인 등), 2) 3.31일 트럼프 방중과 관세 협상 진전, 3) 이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다. CSI3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13.1배로 최근 5년 평균인 13.5배를 하회하여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내수 회복 정책 효과와 3가지 모멘텀의 현실화가 맞물릴 경우 중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한다.

*[중국 ETF] 미국(MCHI): iShares MSCI China ETF/ 한국(A283580): KODEX 차이나CSI300

ESG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2026 주주총회 프리뷰] 정책 효능감

-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기업의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증가
-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다수 상정
- 구속력 있는 정책 효능감 → 韓 증시 인프라의 구조적 업그레이드에 기여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기업의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증가

2026 년 2 월 유가증권시장 주식 소각 공시는 48 건으로 1 월(10 건) 대비 4.8 배 급증했다. 3 월 13 일 기준 소각 예정금액은 28.3 조원으로 전년 연간(30 조원)의 94.6%에 달한다. 3 차 상법 개정을 전후한 기업들의 선제적·즉각적 대응으로, 구속력 있는 정책의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작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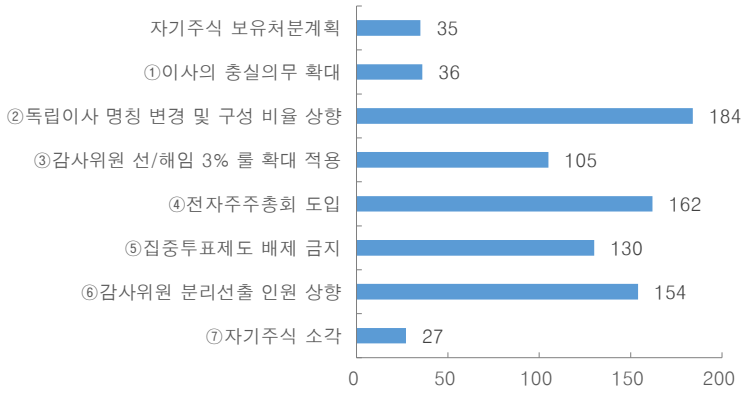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다수 상정

코스피 200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분석 결과, 상법 개정 항목이 압도적 수용률을 보였다. SK, 두산, 한화 등 주요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사주 처리 방향을 이사회(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동의를 얻는 거버넌스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을 보였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밸류업에 이어 구속력 있는 정책의 효능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기업은 주주총회 익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제공이 가능한 시장 인프라, 밸류업 공시 참여 확대, 두 변화가 맞물리게 되었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에서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피 200 기업들의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안건 현황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any Report ★★★★★

코셈 (360350)

제2의 파크시스템스를 찾는다면

김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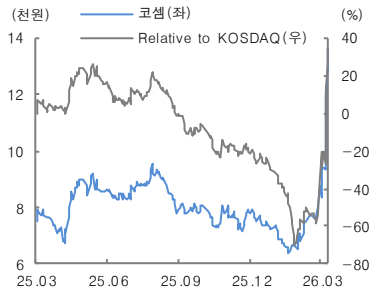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6.03.13)	13,200
	스몰캡업종

- 전자현미경 기반 분석 장비 기업
- 2026년, 연구용 장비에서 산업용 장비로 상업화 구간 진입
- 시간 문제일 뿐, 신규장비 상업화에 따른 주가 Re-rating 기대

KOSDAQ	1,138.29
시가총액	756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0억원
52주 최고/최저	13,620원 / 5,9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억원
외국인지분율	7.29%
주요주주	이준희 외 10 인 22.82%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외 1 인 5.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0.5	89.4	82.8	82.6
상대수익률	82.7	54.0	34.3	14.5



전자현미경 기반 분석 장비 기업

주사전자현미경(SEM) 기반 나노 분석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기업. 주요 제품은 Tabletop SEM과 EDS 통합 분석장비로, 3Q25기준 Tabletop SEM이 매출의 64%를 차지. SEM 컬럼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현미경의 소형화 및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중심 SEM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후공정 및 산업용 분석장비 시장 타겟으로 대기업 SEM과 이온건(Ion-Gun) 모듈 등 신규 장비 사업을 추진 중

투자포인트: 연구용 장비에서 산업용 장비로 상업화 구간 진입

1) 신규 장비 사업의 상업화 임박: 이온건 모듈은 반도체 양산 플랫폼에 채택될 경우 10~15년 이상 반복 공급이 가능해 양산 적용시 연간 수 백억원 규모의 매출 기대. 또한 대기압 SEM 상업화 시 수억~수십억원 산업용 장비 시장으로 확장되며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신규 매출 기여 기대

2) 그래핀 멤브레인 기반 차세대 대기압 SEM 기술 확보: 기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대비 높은 전자 투과율을 확보해 대기압 환경에서도 nm급 고해상도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현미경 핵심 기술을 확보

2026년, 신규 장비 상업화에 따른 성장 구간 진입 전망

2026년에는 기존 연구용 SEM 장비 매출 성장과 신규 장비 사업 매출이 일부 반영되며 성장 국면 진입 예상. **코셈은 최근 AP시스템에 이온건 모듈 3대 공급을 완료**하며, 반도체 장비 부품 사업 진입의 초기 성과를 확보. 해당 모듈이 장비 양산 공정에 적용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되며, 본격적인 공급 확대는 시간의 문제. 또한 대기압 SEM 상업화 여부 역시 산업용 장비 매출 본격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과거 파크시스템스가 AFM 장비 상업화 이후 주가 Re-rating을 경험한 사례를 고려할 때, 코셈 역시 신규 장비 상업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존재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0	0	137	147	134
영업이익	0	0	15	-2	-15
세전순이익	0	0	17	7	-14
총당기순이익	0	0	17	7	-9
지배지분순이익	0	0	17	10	-9
EPS	0	0	337	179	-153
PER	#DIV/0!	#DIV/0!	0.0	43.7	-87
BPS	0	0	2,553	4,135	3,218
PBR	0.0	#DIV/0!	5.3	3.3	4.1
ROE	0.0	0.0	26.4	5.6	-2,11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코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